

제 목	국 문	콜타르 핏치 취급 근로자의 광독성 피부질환		
	영 문	Phototoxic dermatitis among coal-tar pitch workers		
저 자 및 소 속	국 문	정철, 임현술, 김두희, 성열오* 동국대의대 예방의학교실, *피부과학교실		
	영 문	Cheol Jung, Hyun Sul Lim, Doo Hie Kim, Yeol Oh Sung*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&, Department of Dermatology*, College of Medicine, Dongguk University		
분 야	환경	발 표 자	정 철	
발표 형식	구연	발표 시간	10분	
진행 상황	연구완료 (), 연구중 () → 완료 예정 시기 : 1996년 10월			
<p>1. 연구 목적</p> <p>1) 콜타르 핏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와 취급하지 않는 근로자에서 피부질환의 유병 차이를 비교한다.</p> <p>2) 콜타르 핏치에 의한 피부질환을 관찰한다.</p> <p>3) 콜타르 핏치에 의한 광채포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찰한다.</p> <p>2. 연구 방법</p> <p>1) 설문조사 저자들은 1996년 6월에 화학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콜타르 핏치를 취급하는 근로자 10명과 콜타르 핏치를 취급하지 않는 근로자 64명에 대하여 과거 질병력과 입사 후 피부질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</p> <p>2) 전문의 검진 피부질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피부과 전문의가 검진을 실시하고 피부병변을 진단하였다.</p> <p>3) 첩포검사 콜타르 핏치를 취급한 적이 없는 20대 일반 성인 남자 6명을 대상으로 광채포 검사를 시행하여 콜타르 핏치에 의한 피부 광독성을 관찰하였다.</p> <p>4) 통계처리 모든 자료는 코딩한 후 전산 입력하였고 SPSS/PC*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. 폭로군과 비폭로군 간의 비교를 위해 χ^2-검정법과 Fisher의 직접 확률 검정법을 이용하였다.</p>				

3. 연구결과

1) 콜타르 찢치 폭로군과 비폭로군의 과거 질병력에서는 폭로군에서 특별한 과거질환을 앓은 적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.

2) 콜타르 찢치 폭로군은 현재 광독성 피부병변이 9명(90%), 여드름이 7명(70%)에서 관찰되었으나 비폭로군은 한명도 관찰되지 않아 폭로군에서 광독성 피부병변과 여드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다.

3) 콜타르에 의한 광침포 검사에서는 이차판독시 6명 중 5명(83.3%)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냈다.

4) 콜타르 찢치 폭로군에서 4명은 피부병변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피부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6명에서 입사 후 즉시 나타났다는 응답이 4명(66.7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악화시키는 여름이라고 응답한 수가 6명(100%)이었으며 햇빛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6명(100%)이 악화된다고 응답하였다. 콜타르에 의한 광독성 피부반응은 주말에 호전(50%)되며, 작업시에는 악화(66.7%)된다고 응답하였다. 증상 발현 부위는 얼굴이 4건(36.3%), 팔 2건(18.2%), 손 2건(18.2%)의 순으로 주로 외부노출부위인 것으로 나타났다.

5) 콜타르 찢치 폭로군의 동료 중 악성암이 관찰된 사례는 듣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.

4. 고찰

콜타르 찢치 취급근로자에 있어서 콜타르 찢치에 의한 피부광독성과 여드름을 관찰할 수 있었다. 발암성의 여부는 계속 관찰 연구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콜타르 찢치 취급 근로자에 대하여 피부병변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